광주 역사·문화자산 콘텐츠 창제작…亞문화도시 거점돼야

광주, 민주화 도시 넘어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6〉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7년

전당재단과 연계 시너지 창출
5·18 '시간을 칠하는…' 공연정례화
전당 조직문화의 근본적 혁신
지역과 공존·상생·협치도 과제

지난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올해 개관 7주년을 맞는 문화전당은 실질적인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광주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창제작 등 본질적인 역할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통합, 전당재단 설립 등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문화전당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통과 마케팅 기능을 담당하는 전당재단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 문화전당은 개관 후 지금까지 대표 브랜드, 킬러 콘텐츠 하나 없는 '허울 좋은 문화 발전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지금까지는 출범 초기인데다 이원화 체제, 조직 정비 등 내·외부 요인들이 산적한 탓에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도 "기다려 주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조직이 재정비되고 개관 7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당초 문화전당 설립 취지에 맞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문화발전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언급한대로 광주의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의 창제작이 절실하다. 지역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문화전당 출범 초기에는 실험성 위주 작품을 선보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 난해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은 향후 대표 공연 정례화와 상설 콘텐츠 구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선보였던 5·18 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시간을 칠하는 사람'의 정례화 공연(5·18주간), 복합2관을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체험관으로 조성한다는 대목 등이 눈에 띈다.

그러나 무엇보다 ACC가 아시문화중심도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체 조직문화 혁신이 선결 조건이다. 이원화 당시 경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문턱이 높고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인상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탓이다. 향후 개방성을 매개로 한 조직문화 혁신이 ACC 성패를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화전당과 지역과의 협치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지역과의 공존, 상생 시스템을 토대로 5·18 및 생태환경 자산을 지역핵심 자산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과 그 건물에 얽힌 칠장이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한 '시간을 칠하는 사람'. 이 작품은 ACC 창작스토리 콘텐츠 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 '시간을 짓는 건축가'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특히 최근 문화전당과 시민연대가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다. ACC 운영 자문위원회에 지역 인사가 참여하기로 한 점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준비는 지역과의 협치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지속가능한 ACC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에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상임이사는 "자칫 정권 교체로 인한 정부 차원의 관심도 하락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협력해 문화전당 활성화와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일상회복' 본격화

광주·전남 신규 확진 5000명대 ↓…전국 나흘째 10만명 아래
영화관 등 취식 가능…5월 요양병원 등 접촉면회 한시 허용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떨어지는 등 9일 연속 1만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나흘째 10만명 대 아래로 떨어지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2373명, 전남 3171명 등 5544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16일 1만 명 이하로 줄어든 이후 17일 7957명, 18일 4082명, 19일 8101명, 20일 8003명, 21일 7151명, 22일 6635명, 23일 6384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도 6만명대 중반에 머물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만4725명 늘어 누적 1689만 51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13일 5만 6410명에서 같은 달 20일 10만 4823명으로 급증한 이후 9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도 허용한다.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 역대급 심야열병식 ICBM 등 총동원 할 듯

대동강 '부교' 설치장비 250여대

북한이 오는 25일 이른바 항일유격대(항일빨치산)인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과 정보당국은 25일 0시를 전후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병력 2만 명가량이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예행 연습에서 장비만 250여대가 동원됐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잇달아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몇 년 새 잇달아 개발했다고 공개한 ICBM 등 각종 신형 무기체계를 총동원해 무력 과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굵직한 정치 일정마다 열병식을 개최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이색 행사'로 준비하는 동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열병식이 열릴 김일성광장 앞에서 대동강을 가로질러 맞은편의 주체탑이 있는 광장까지 이르는 일종의 물에 뜬 다리인 '부교' 2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식 때 '대동강 부교' 설치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투자 경기·수도권 10억원 이상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7-4700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30년쯤전에 연락이후 소식을 모르는
기성권(승권) 67년생 남 찾습니다
친어머니 이 수 연
아버지는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오래전사망
동생 이 재 선 HP. 010-5591-7208
연락 바랍니다

채권 신고 공고(1차)
본 법인은 1984년 5월 10일 성립되었고, 2001년 12월 8일에 해산 간주되었습니다. 해산 간주 시 청산인으로 취임된 청산인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청산인이 잔존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11일 취임하였습니다.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서기 2022년 6월 22일까지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리는 바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주식회사 수월산업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119
청산인 장 내 윤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최병철(620118-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서하로194번길 15, 201동108호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최병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31호로 신청하여 2022년 4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4월 25일
• 상속인 : 1. 최학규(920909-XXXXXXX) 광주 북구 서하로194번길 15, 201동108호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
2. 최민규(990609-XXXXXXX)
3. 최민우(000806-XXXXXXX)
4. 최하나(030910-XXXXXXX)
상속인4.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경숙
상속인2,3,4 주소: 광주 북구 우치로 361번길 17, 203호(삼각동)
• 신고기간 : 2022. 4. 25. ~ 2022. 7. 5.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최학규의 주소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사는 2022년 03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사실을 2022년 03월 25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2년 5월 25일까지 채권액을 신고해 주실 것과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주식회사 이룸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40번길 13(유촌동)
청산인 장 태 규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 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2022년 4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 회사는 엠에스웨이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고 엠에스웨이 주식회사가 본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본 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따라 구주권을 병합하여 소각하므로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도 이 공고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원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에이동 116-2호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지원센터)
대표이사 이 민 수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光州日報 지국 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